



신임 이상덕 대사 KOGA 회원사인 대한 글로벌과 JM TEC를 방문했다

# 한국봉제협회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 Vol. 63





# 이니, 수출업체에 달러 결제대금 3개월간 국내 예치 의무화 추진

## 이체 제한 막은 IMF 규정과 충돌 우려 ... 방안 찾는 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외화로 받은 결제 대금은 3개월간 국내에 의무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일(현지시간) CNBC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전날 정책제도안정위원회(KSSK)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19년에 만들어진 수출업체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이 많을 때 외환보유고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업체는 외화로 결제 대금을 받을 때 국내 은행 계정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외화 수입이 국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수출업체들은 국내 계좌로 결제 대금을 받은 뒤 바로 다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해외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이 규제를 강화해 국내 은행으로 결제 대금을 받고 이를 의무로 3개월간 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을 천연자원 수출업체뿐 아니라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업체들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외화 수입의 일부를 반드시 루피아로 환전해야 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신 이들을 위한 특별금리를 제공하고 세계 혜택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국제 거래 관련 지급이나 이체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통화기금(IMF)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부와 경제조정부, 산업부 등이 세부 정책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월 중에는 규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투자와 수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외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천연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

는 전 세계에서 석탄과 팜유 수출 1위 국가이자 원유, 천연가스, 주석, 구리 등을 대규

모 수출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2천920억 달러(약 359조7천억 원)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신임 이상덕 대사 KOGA 회원사인 대한 글로벌과 JM TECH 방문



네시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KOGA 안창섭회장과 많은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고 신임 이상덕대사의 적극적인 우리 기업 방문과 관심을 KOGA에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대표참석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권오흥 국세관, 이상전노무관, 이윤석 참사관, 양영준관세관, 상임사 이부형 대한 글로벌 회장, JM 문영권사장등)

지난 1월 24일 신임 주인도네시아 이상덕 대사를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는 KOGA 상임사 및 회원사인 대한 글로벌과 JM TECH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이 향후 신임 이상덕대사의 부임후 첫 방문으로 한인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봉제협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인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1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 인플레이션 억제한다는 연준 발표에 달러 급락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고비를 넘겼다고 발표한 후 2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캠페인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시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지난 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 과정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은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그는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 인화가 압박한 것은 아니라는 신호도 보냈다.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기로 합의한 이틀간의 정책 회의가 끝난 후 1일에 나온 연준의 성명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둔화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파월의 발언 이후 달러 가치는 급락했다. 미국 달러 지수



는 1일 통화 바스켓 대비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00.80까지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1일 1% 이상 하락한 100.88로 마감해 0.07% 하락했다.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NAB)의 레이 애트릴 FX 전략 책임자는 “파월이 당분간 금리가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이 시장이 2년이 아니라 6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단념시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호주 시장은 2일 초기 아시아 거래에서 8개월 만에 최고치인 0.7158달러까지 치솟았던 전 거래일에 1.2% 상승한 후 마지막으로 0.7150달러에 거래됐다.

뉴질랜드 시장은 2일에 1% 이상 급등한 후 비슷하게 8개월 만에 최고치인 0.65365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엔화에 대해 달러는 0.5% 이상 하락한 128.17로 장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준이 물러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과 잉글랜드은행(BoE)이 2일 늦게 금리 결

정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예상치는 각각 50베이시스포인트 상승이다. 유로화는 2일에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인 1.1034달러까지 올랐으며 파운드화는 0.14% 오른 1.2392달러를 기록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1월에 3개월 연속으로 완화된 것으로 2일 자료에 나타났다. 그러나 기본적인 가격 상승이 꾸준하고 수치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에 대한 안도감은 제한적일 수 있다.

메이뱅크 증권은 프라임 증권 거래 책임자인 타렉 호르차니는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플레

이션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럽중앙은행이 최소한 2023년 1분기 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27일의 비농업 급여 보고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2일 공식 통계에 따르면 12월에 일자리가 예상치 못하게 증가했지만 노동 시장은 여전히 딱딱하였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가 6월까지 4.9%를 약간 밀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했던 5%를 약간 밀돌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재외동포재단,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 이하 재단)은 해외 한인 차세대와 교류하면서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할 ‘2023년도 OKFriends(대학생 봉사단)’을 90여 명 규모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제11기 OKFriends 봉사단 (사진=재외동포재단)

재단은 재단이 시행하는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등 다양한 초청사업의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차세대 재외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단으로서 재외동포사회에 파견되어 현지 동포사회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재단은 오는 2월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3월 11일 면접을 진행해 3월 15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봉사단 발대식은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현재 국내 소재 대학교(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내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서는 2월 26일까지 이메일(okfriends@okf.or.kr)로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코리안

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코리안넷 홈 → 공지사항 → 361번 ‘제12기 OKFriends 봉사단 모집안내’

활동 기간은 3월~12월까지 약 10개월간이며, 활동을 마친 봉사단원에게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김성곤 재단 이사장은 “OK-Friends 봉사단원들이 봉사활동과 공공외교활동 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코리안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급, 동포사회와 모국, 거주국이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인재 양성의 의지와 비전을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자카르타경제신문]

## KOGA... pak Yasonna 법무장관과 간담회 가져



koga는 지난 1월 12일 pak Yasonna 법무장관이 주최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pptjib(yan mei), koga(조현호법인장,홍

희준이사,강병욱법인장,김태훈부장),근로자 대표로 참석했다

pak Yasonna 법무장관이 주최한 간담회 이슈는 노동집약



임금 인정 장관령 필요. 고용 창출법 2021, 임금 법령 pp36 적용 서부자바주, 반텐주등 높은 최저임금 동결이 노동부 장관령 18호(2022.11월)로 바뀌어 정부 정책 일관성 상실로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와 현실로 상호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보다 더 나은 방안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Kawasan Industri Rangkas Bitung by PT. Muns Cipta Bangun

### 최적의 산업단지 분양!

# 왜 멀리서 찾지?

우리가 몰랐던 이곳! ... 공항, 항만과 땅그랑 도심 가까이 저렴한 인건비, 노동인력 풍부한 지역으로 100hr 규모로 조성합니다!

1. 위치 : Rangkas Bitung, Lebak, Banten
2. 면적 : 100 hr (1,000,000 M2)
3. 공단개발지 산업용지로 지정 완료.
4. Serang-Panimbang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이 용이함. Tol Gate에서 10분거리.
5. Kabupaten Lebak 인구수 : 2020년 조사기준 약 138만명
6. 최저임금 : 2023년 기준 Rp 2,944,665 으로 BANTEN주내 최저이며, 인구가 많아 노동집약적 산업에 적합함.
7. 분양가 : Rp 800,000/M<sup>2</sup>  
7.1 부가세, 취득세, 이전비용 별도  
7.2 공단내 도로, 배수로 및 부지평탄작업등 기본토목공사 완료기준.
8. 시행 및 시공사 : PT. Muns Cipta Bangun

출발지	거리	소요시간
Gerbang Tol Tangerang	85 Km	1H 10M
Air Port (CGK)	103 Km	1H 30M
SCBD Jakarta	108 Km	1H 40M
Tanjung Priok Port	121 Km	2H 30M

문의처 : 081190097773 (whatsapp)  
kakaoTalk ID : muns.id  
Email : munsclub@muns.id

Grand Serpong Mall (Great Western Resort) Lt. UG No. 6,  
Jl. MH. Thamrin KM. 2.7, Kebon Nanas, Kel. Panunggangan Utara,  
Kec. Pinang, Kota Tangerang, Banten, Indonesia 15143  
Tlp. 021-5541747 | E-mail. munsclub@muns.id, munsclub33@gmail.com  
www.muns.id



# 본인은 싫다는데... 인니서 대통령 임기 연장 움직임 계속돼 국책연구소 보고서에도 선거 연기 가능성 포함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인도네시아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자카르타 포스트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흐푸드 엠데 인도네시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과 단체들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해 대선 연기 법안과 3선 금지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흐푸드 장관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자유이며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으며 이들이 서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카르타 포스트는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가안보연구소(Lemhannas)가 이달 펴낸 보고서에서 선거 연기 가능성과 대통령 임기 연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안디 위자잔토 연구소장은 이 보고서가 조코위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그에게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흐푸드 장관은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큰 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에서 선거 준비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14일 대선과 총선, 지자체장 선거 등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마흐푸드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은 여전히 2024년에 선거를 치르길 원하며 임기 연장이나 3선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3선을 위한 개헌설은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조코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자 인도네시아 내 최대 이슬람 단체인 나흐타물우라마(NU)는 개헌을 통해 3

선을 허용하고 대통령 선출 방식도 국회에서 간선제로 하고 제안했다.

또 지난해에는 조코위 대통령 측근을 중심으로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 상황과 위기 극복을 위해 대선을 1~2년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조코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컸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시위가 이어지자 조코위 대통령이 나서서 임기 연장이나 개헌 등을 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조코위 대통령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임기 연장이나 개헌설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지지율이 높아서다.

인도네시아 조사연구소(LSI)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76.2%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 코로나 풀리자 자카르타 교통 혼잡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자카르타 25개 도로에서 혼잡통행료 부과...  
7월부터 경전철 운행



전세계에서 길이 가장 많이 막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자카르타 포스트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내비게이션 업체인 톱톱에 따르면 최근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도는 평균 50%를 웃돌고 있다. 교통 혼잡도가 50%라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 30분 걸리던 곳을 교통 체증으로 50%(15분) 늘어난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카르타의 평균 교통 혼잡도는 2019년 53%를 기록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2020년에는 36%, 2021년에는 3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 최근에는 평균 50%를 넘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가장 교통이 혼잡했던 오후 6시 기준 자카르타의 교통 혼잡도는 92%를 기록, 2019년 같은 시간 대비 6%포인트 낮았지만 2021년보단 30%포인트 높았다.

자카르타 경찰 교통부는 이 같은 교통 체증으로 인해 발

생하는 비용이 연 70조 루피아(약 5조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교통학회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개인 차량은 더 늘어났지만, 도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통 혼잡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더 매력적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트랜스 자카르타의 지난달 일평균 이용객 수는 82만 명을 기록,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던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 주 정부도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훌짜체에 이어 올해 중 25개 주요 도로에 싱가포르식 혼잡통행료(ERP·Electronic Road Pricing)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자카르타 위성 도시 보고르, 데폭, 브카시와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자보데벡 경전철(LRT) 운행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mailto: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http://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 ‘1.2억’ 인도네시아 이륜차시장... KB손보, ‘안전모’ 씌운다



▲KB손보가 인도네시아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KB손보

KB손해보험이 지난 6일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이륜차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모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KB손해보험 인니법인 직원 및 RLC(Refugee Learning Center) 학교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보고르 지역에 위치한 RLC 학교에서 진행했다. KB손해보험은 전달식에 참여한 학생들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이륜차 안전모 1200개를 전달했다. 이번 ‘안전모 지원사업’은 KB손해보험의 신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륜차 이용률이 높은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 인도네시아 경찰청 등록 기준 인도네시아 이륜차 수는 약 1억2000만대다. 이는 전체 가정 대비 보급률 85%에 달한다. 이륜차 판매 규모 또한 세계 3위로 인도네시아의 이륜차 이용률은 굉장히 높다. 주거, 생활 및 학교시설과의 거리

가 멀고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청소년 시기부터 이륜차 이용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청소년 운전자들의 이륜차 사고 역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이륜차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모 미착용인 점에 착안해 안전모 지원사업을 기획했다. 향후에는 전달식을 진행한 RLC 학교 외에도 인도네시아 내 5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륜차 안전모를 전달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안전모 전달을 통해 현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모 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진정성 있는 ESG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KB손해보험 인니법인 담당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보험 서비스와 함께 현지에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 Natura(현물)와 Kenikmatan(향응) 제공에 대한 정부령

2022년 12월 20일 정부령 55호(PP55/2022) 과 공포되었다.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정부령으로 지난 조세조화법 (HPP) 이 발효되면서 관련한 소득세 정부령도 개정하게 되었는데 과세대상, 비과세 대상, 손금산입, 감가상각, 현물/향응에 대한 과세, 조세회피방지, 국제협약, 기부금에 대한 면세, 특정과세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 소득세율등의 규정하고 있다. 제 24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물/향응 a. 모든 직원(Seluruh Pegawai)에게 제공되는 음식,음료 b. 특정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 및 향응 c.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할 현물/향응 d. 주예산, 지방예산(APBD), APBDes등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제공되는 현물/향응 e. 특정제한 업종에서 제공되는 현물/향응 제 25조부터 28조까지는 상기 해당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25조는 제24조 a항에 언급된 내용으로 모든 직원을 위한 음식, 식품, 음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닌 모든 직원(Seluruh Pegawai)에게 제공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제 26조는 제 24조 b항에 언급된 특정 지역에서 제공되는 현물로서 국제청장으로 부터 특정지역을 지정 받아야 한다. 제 27조는 제 24조 c항에 언급된 업무 수행시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물로서 유니폼, 작업안전장비, 직원셔틀시설, 승무원숙소, 전염병, 국가 재난에 대응하고자 하는 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제 28조는 제 24조 e항에 언급된 특정 제한 업종에서 제공되는 현물에 대한 고려사항을 두고 있다. 제 29조 현물(Natura)는 시장기치와 동일하고 향응(Kenikmatan)은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동일하다. 또한 현물(Natura)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양도되는 금전 이외의 형태의 보상이고, 향응(Kenikmatan)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형태의 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30조는 고용주 또는 제공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원천세 규정에 따른다. 제 31조 아래 사항은 재무부장관령 규정에 따른다. a. 제26조에서 언급된 특정 지역에서 제공된 현물과 관련한 소득세 대상 면제 절차 b. 제25조 c항에서 언급된 특정 가치, 제 29조에서 언급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물의 특정 가치 c. 제29조에서 언급된 현물



김재훈 대표

가치의 평가 절차와 계산

구체적 내용은 재무부 장관령이 나와야 하겠지만, 제 73조 2항에 고용주가 소득세 공제 시스템을 준비하거나 조정할 공제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직원이 받거나 벌어들인 현물과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2022년은 현물/향응을 제공받은 자가 소득세 계산,납부,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22년은 개인이 회사로부터 제공 받은 현물 및 향응에 대해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합산, 2023년부터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 대상” 이라고 하겠다.

###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전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전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전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 e-mail: kimjhoon@bngconsulting.co.kr

## PT. TOP ABADI

### All in one packaging service with best price

20년 동안 인도네시아내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품기일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최저가격으로 고객사에 도움을 드립니다.

**카톤박스**

**단플라박스**

**대차 및 랙**

**플라스틱제품류**

**종이제품류 속대지, 종이각대, 종이튜브 등등**

- 카톤박스 (미니, 대형 사이즈 가능)
- 단플라 박스
- 커스텀 제작 대차 및 랙,
- 원단 릴리스 거치대 및 봉제 테이블
- 팔레트(철재, 플라스틱, 종이)
- 인쇄박스 및 내부속대지

모든 아이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 제작 가능합니다.

Bekasi Int'l Industri Estate (BIIE)  
 Kawasan Industri Hyundai Blok C2 No.1A, Ds. Sukaresmi, Cikarang Selatan Bekasi, Jawa Barat Indonesia 17550  
 마케팅 팀장 홍희준 0811 1129 038    마케팅 담당 Ibu Ratna 0878 7720 8572    Email : top\_abadi@yahoo.co.id, rielwooha@gmail.com



## 한국 산별노조 배우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지난달 31일 인도네시아의 3개 제조업노조연맹 간부와 활동가들이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했다. 인도네시아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CEMWU)·에너지광산화학노조연맹(FSPKEP)·제약병원노조연맹(FARKES-Reformasi) 활동가와 단위노조 간부 12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산별노조 연수단’은 지난 1월30일 입국해 서울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기념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노조 활동가들은 “국제 상급단체인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 프로젝트의 교육과정에서 산별노조운동 전략을 알게 된 후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화섬식품노조를 비롯한 한국의 산별노조와 산별연맹을 방문해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정책과 활동을 배우으로써 인도네시아 산별연맹들의 조직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산별노조 사례 중에서 스웨덴과 독일과 한국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기업별노조들의 연맹체에서 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한국 노동운동 사례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산업과 업종을 넘어 다양하고 폭넓은 조직화를 시도하면서 가장 최근인 지난해 산별노조 전환을 완성한 화섬식품노조 사례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방문한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은 화학·광산·고무·타이어·제지 등 570

개 넘는 사업장에 조합원 17만여명을 둔 인도네시아 최대 산별연맹 중 하나다. 또한 제약병원노조연맹은 제약·병원·화장품·전통의약 등 61개 사업장 조합원 1만4천여명을 두고 있다. 에너지광산화학노조연맹은 다양한 업종에 7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지난달 31일 화섬식품노조과 이달 1일 금속노련을 방문해 산별노조 전환의 성공과 실패 과정, 산별연맹과 산별노조의 재정과 조합비 차이, 본조·지부·지회 등 노조체계, 단위노조의 상근자수와 노조

사무실 현황, 산별노조 본부의 부서 역할, 산별노조 전환 과정에서 대기업 사업장과 단위노조 간부 역할의 중요성, 조합원들이 적립한 투쟁기금을 비롯한 각종 산별기금 용도, 여성과 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 해고자와 노조활동 희생자 지원 방안, 봉제노동공제회 같은 노동자협동조합 사례, 기업별 대각선교섭 이후의 산별교섭 전망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3개 제조업연맹 산별노조 연수단을 대표해 슬리수티요노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 국장은 “한국 노동



▲인도네시아 화학에너지광산노조연맹(CEMWU)

운동이 인도네시아와 아시아 노동조합의 산별노조 건설운동에 큰 힘이 돼 줄 것을 요청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화섬식품노조 지도부와 현장 간부들을 모시고 산별노조 포럼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비 제약병원노조병원연맹 위원장은 “양국 노동운동이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그리고

자본가의 탄압을 뚫고 노동조합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연수단 방문이 양국 노동운동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산별노조 전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노조 활동가들은 한 주 동안 화섬식품노조·금속노련·보건의료노조·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안산비정규노동센터, 안산416기억교실, 노무법인 사람과산재를 방문해 한국의 산별노조 건설과 활동을 배우고, 노동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쟁점을 논의한 후 6일 출국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RCEP 활용 수출 33억달러...일본 수출 비중 67% 달해 발효 1년간 리튬화합물 등 배터리 제조용 품목 주로 수혜 수입 56억달러...일본·중국·태국 순 RCEP 활용 많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 후 약 1년 동안 이를 활용한 수출 실적이 일본·중국·태국 등을 중심으로 33억달러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일 RCEP 발효 1년을 맞아 RCEP을 활용한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RCEP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1일 발효됐다.

관세청이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RCEP을 활용한 수출은 33억달러였다.

이는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실적을 대상으로 한 통계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면 수출 규모는



▲RCEP (CG)

33억달러 이상일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수출 대상 국가별로 보면 대(對)일본 수출이 22억3천400만달러로 활용 실적의 67.3%를 차지했다. 중국이 9억2천만달러(27.7%), 태국이 8억1천만달러(2.4%)로 상위 3개 국가의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리튬화합물

(7억5천만달러), 황산니켈(1억4천만달러) 등 배터리 제조용 품목이 주요 수혜 품목이었다.


대일 수출에는 황산니켈(1억4천만달러), 대중 수출에는 리튬화합물(6억9천만달러)이 RCEP를 가장 많이 활용했다. 태국 수출 때는 김·미역 등 해조류(1천만달러)가 많았다. RCEP을 활용한 수입은 56억

달러였다. 일본(27억1천600만달러·48.3%), 중국(21억7천800만달러·38.7%), 태국(6억4천900만달러·11.5%) 등이 RCEP 수입 실적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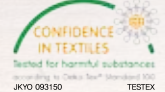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배터리 원료인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억9천만달러), 기타 석유제품(7억5천만달러)이 주로 RCEP을 활용해 수입되고 있었다.

이번 수출입 실적에는 RCEP 체결 국가 중 9개국만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는 지난해 발효가 되지 않았고 브루나이·라오스는 활용 실적이 없었다.

관세청은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RCEP의 특성으로 대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황산니켈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RCEP에서 0%로 낮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분도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g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 한·일의 상춘(賞春)을 그리며

구정 연휴에 잠시 일본을 다녀왔다. 우선은 가까워서 좋았고 한겨울에 너무 더운 곳을 찾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일본은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다. 치안이 잘 유지되고 환경이 깔끔하고 사람들은 친절하다. 상품은 믿을 수 있고 관광에는 바가지가 없다. 조용하게 쉬기에는 참 좋다는 생각이다. 한·일간에 문화도 경제도 관계가 나쁘지 않다. 아쉬운 것이 과거사 문제다. 한·중·일 3국은 깊은 관계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였기에 불가분의 관계다. 이리보고 저리 보아도 일본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많이 시달린 나라가 한국이다. 구체적인 역사를 돌이켜보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내 탓에서 찾아야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쇠국(鎖國)했기에 일어난 일이다. 개방을 하지 않고 기술을 중시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하였고 딱 200년 만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이어서 정유재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굴욕을 당했었는가? 그로부터 또 302년 만인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중국(청나라)과 일본이 우리 땅, 우리 바다

에서 싸웠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동학 농민 봉기 때문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일본에게 결국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했다. 한일합방이라면 더 잘 알 것이다. 만주를 복속(服屬)시키고 청나라를 유린한 일본이 기고만장한 것은 개방정책으로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고 무기개발에 앞장섰기 때문인 것이다. 오늘날 말하는 기술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창씨개명을 하였고 지카타비나 게다를 신고 다니며 스미마생을 입에 달고 다닐 것이다. 자주독립을 하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청나라 말기는 부정부패에 빠져있었고 영국의 동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거문도에도 무단 점유하여 몇 년을 있었다. 부패한 청나라는 청일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이고 우리의 경술국치처럼 비슷한 시기에 신해혁명이 일어난다. 청나라는 사실상 망한 것이다. 그 이후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치는 국공합작을 하여 일본의 침입에 대항하였다. 2차세계대전후 대약진운동을 일으키며 홍위병들이 설쳐댔고 천

지개벽을 할 것 같았던 문화대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홍으로 범벅이 되었다. 우리에게 천만 다행인 것은 중국이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소련과의 국경분쟁에 패하여 동해 연안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죽의 장막을 치고 암흑기에 들어서는 동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했지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지난 천년여 역사를 두고 중국에 앞선 때가 지금까지의 50년 정도일 것이다. 동해가까이 두만강 하류, 중국의 방천지구에는 조·중·러 3국 국경이 있다. 동해안까지 20~30km나 될까?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에서 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이 있다. 동해 연안을 따라 가늘고 길쭉한 땅이 러시아 땅인 것이다. 이로서 중국은 동해가 없다. 어항, 군항, 어장도 없고 200해리 대양이 없으니 중국으로서는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요즈음으로 돌아와 보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동안 어린애가 아니라면 북한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죽기 살기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다. 몰랐다면 '10만 양병설'을 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는 실책이다. 순망치한(唇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입술로 삼는다. 남한에 있는 미군과 압록강에서 마주하고 싶지 않기에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방해하며 북한을 가마오지로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 통일된 강한 한국을 누가 원

하겠는가? 2차 대전 후 미국은 지도를 놓고 '애치슨 라인'을 그었다. 이것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다. 소련과 중국의 영토적 야욕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극동 방위선을 캄차카 반도와 알래스카 사이에 있는 알류산 열도 - 일본 - 오키나와 -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그은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 인도차이나 반도는 제외되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이 쉽게 소련을 설득하여 6·25전쟁을 일으키고 중공군을 끌어들리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제 중국이 많이 컸다. 미국으로서도 버거운 상대다. 미국은 팽창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그럴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 4개 섬 문제로 갈등이 있다. 쿠릴 열도 분쟁이다. 그러다보니 북핵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한·미·일·대만과 호주, 또 인도 등이 단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에 시달린 과거가 있다. 남지나 바다를 독식하려고 인공섬까지 만든 것을 보면 근해의 국가들은 어찌 하란 말인가? 영토, 영해를 욕심 내면 빼앗기는 나라는 또 어찌란 말인가. 한 주먹 쥐는 것은 쉽고 안 움큼 쥐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한아름을 안고 가려면 팔이 빠진다. 욕심은 화



조기조 박사  
를 자초한다. 자유와 민주, 정의와 공존, 민복을 위하는 나라는 순천자(順天者)다. 과거사를 언제까지 풀지 못하고 갈 것인가?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선린(善隣)이 되려면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다. 일본이 그리하리라고 믿는다. 감추려는 것이 문제지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바른 길이다. 바른 길로 가자. 우에노 공원에는 조생 사쿠라가 피었다. 진해에는 이어 벚꽃이 만발할 것이다. 한·일의 상춘(賞春)을 기대한다.

**조기조(曹基祚 Kyoch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비서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 제주항공, 인천~발리 취항 추진...이니 공항공사와 협력

제주항공이 인천~발리 노선 취항 등 인도네시아 운항을 추진한다. 제주항공은 인도네시아 제1 공항공사(AP1)와 노선 개발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P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기업으로, 발리와 바탐 공항 등 인도네시아 15개 공항 운영을 맡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인도네시아 주요 공항의 관광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인천~

발리·바탐 등의 신규노선을 개발한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9월 체결한 인도네시아 북부술라웨시 주와의 협약에 이어 AP1과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인도네시아 항공시장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신규 항공기 B737-8이 도입되면 인천~발리 노선을 운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규 노선 개발 등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파픽 파미 AP1시장(사진 왼쪽부터) 덴디 다니안토 AP1 영업서비스본부장, 고정표 제주항공 커머셜본부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1월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서울지사서 '양국 간 노선 개발 및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inyu@hotmail.com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 때 걸림돌이 되고, 그 결혼을 강행하더라도 그들의 결혼을 공식화하기 어렵게 만드는 혼인법의 모호한 조항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1월 31일(화) 나왔다.

1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방의 종교에 준해 이루어지는 혼인만이 합법적'이라는 규정을 포함한 세 개의 법조문을 무효화해 달라는 한 시민의 청원을 기각한 것이다. 문제의 세 개 조항은 이종교간 혼인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지만 해당 시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대체로 이종교간 혼인을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해당 법조항은 소속 성도가 다른 신앙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종교기관들 판단과 관행에 기초한 것으로 일방의 종교가 이종교간 혼인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국가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결혼을 강행한 부부들이 혼인신고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졌다.

1월 31일 이와 같은 판결을 내놓은 현재는 혼인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종교기관에 있으며 정부는 종교기관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혼인에 대해 혼인신고를 받는 식으로 혼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종교간 결혼을 해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종교기관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혼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적법성'의 '법'이란 각 종교의 '종교법'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혼인법에 있어서는 국가 법령이 종교법의 하위개념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판사는 해당 청원에서 지목한 법조항들이 종교의 자유나 혼인하여 가정을 꾸릴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 취지를 설명했으나 사실상 종교가

## 인도네시아, 여전히 종교 다르면 혼인 “안돼”



▲이슬람 결혼식/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다르면 마음대로 혼인할 수 없는 현실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히두딘 아담스(Wahiduddin Adams) 현재 재판관은 해당 조항들이 예배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 법과 정부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사실, 국민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가질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한편 청원을 제기한 라모스 빠뜨거(Ramos Patege)는 파푸아 출신 카톨릭 신자로 이종교간 혼인금지 조항 때문에 3년간 사귀어 온 무슬림 연인과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청원서를 통해 문제의 세 개 조항이 규정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혼인하여 가정을 꾸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판결을 통해 이종교간 결혼에 대해 보다 분명한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려 했으나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고 말았다.

그는 오직 같은 종교를 가진 배우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한 혼인법이 모든 국민들의 종교와 신앙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배치되며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이종교간 혼인한 부부의 혼인신고를 당국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에서 정부와 국회의 법률 대리인들은 청원인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측은 해당 혼인법이 혼인권

을 제한하거나 특정 개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해당 조항들의 존치를 주장했다. 입법부 측은 혼인이 단지 행정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사

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와 국회 모두 종교기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 종교기관이란 이슬람으로 수렴한다.

인도네시아가 비록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이지만 정치와 행정은 이슬람의 금기를 뛰어넘을 수 없고 현지 사회 일반 국민들 역시 개개인이 가진 종교와 관계없이 이슬람과 무슬림 단체의 입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번 현재 판결에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대위원회(MUI) 산하 가정사랑연대(AILA)와 인도네시아 이슬람 전파위원회 역시 헌법청원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 제3자 개입, 즉 자신들의 의견 반영을 요구하며 재판부가 해당 청원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혼인법에 대한 유사한 판결이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미 두 번이나 나왔으며 현재 이를 개정할 어떠한 시급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에는 일단의 법학도들이 배우자의 종교에 맞춰 개종하는 등 국민들이 혼인과 관련해 특정 종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해당 법조문의 재검토를 청원했다. 하지만 그 이듬해 현재는 해당 청원을 기각하면서 이종교간 혼인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사회의 금기로 남았다.

혼인법의 모호한 규정에 대한 찬반양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일부 단체들은 이종교간 혼인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가 서로 다른 남녀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하는 일, 그들의 혼인등록을 당국에서 접수하는 일은 드물게 신문에 날 정도로 인도네시아 사회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에 속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반동서 정월대보름을 ... 한국문화원 전통문화 체험행사

달집태우기 · 부럼깨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 진행



▲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동에 있는 파리 반 자바 쇼핑몰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행사'에서 참석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2.4.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은 4일(현지시간) 서자바주 반동에 있는 파리 반 자바 쇼핑몰에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은 달집태우기와 오곡

밥 나눔, 부럼 깨기 대회를 비롯해 소원 글 달기와 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문화원은 또 한국 문화 홍보관을 마련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한 한국 서적도 선보였고,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와 함께



▲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반동에 있는 파리 반 자바 쇼핑몰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체험행사'에서 한 관람객이 부럼 깨기를 체험해 보고 있다. 2023.2.4.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 제공]

태권도와 케이팝을 결합한 온더케이(On the K) 영상 상영회도 진행했다.

김용운 문화원장은 이날 1천 100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에 참여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의 해를 맞아 양국 문화예술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노스페이스는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41.1% 성장한 8419억원을 기록하며 아웃도어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기록했다.

## 노스페이스 · 디스커버리 · K2가 절반 차지해 양극화 심화

작년 아웃도어 리딩 9곳, 전년비 15.4% 오른 3.4조

기 대비 10.0% 늘어난 5321억원을 달성했다. 9개 매출 비중의 15.6%를 차지했다. 케이투(K2)는 4.6% 성장한 4497억원 매출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비중의 13.2%로 집계됐다. 블랙야크와 네파가 각각 10.7%, 3.7% 늘어난 3685억, 3516억원을 기록했다.

면서도 야외활동과 해외 여행 증가가 높아지며 아웃도어 업계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푹푹한 한별 혹은 가심비가 뛰어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겨냥해야 한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브랜드	2022년 매출	신장률
노스페이스	8,419	41.1%
디스커버리	5,321	10.0%
케이투	4,497	4.6%
블랙야크	3,685	10.7%
네파	3,516	3.7%
코오롱스포츠	3,327	32.4%
아이디	2,755	-0.3%
컬럼비아	1,618	9.1%
밀레	964	-0.6%
합계	34,102	15.4%

아웃도어 9개 브랜드 간 매출에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업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웃도어 상위 9개 브랜드(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K2, 블랙야크, 네파, 코오롱스포츠, 아이디, 컬럼비아, 밀레)는 작년 평균 매출이 15.4%로 급성장하며 3조4102억원을 기록했다.

9곳은 매출 성장률은 -0.6%~41.1%대를 기록했다. 이 중 매출 상위 3개(노스페이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K2)가 절반(53.5%)을 차지했다.

K2 관계자는 "작년 엔데믹 이후 대면 활동과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가 전반적인 매출 추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최대 판매 시즌인 11월 따뜻한 날씨

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2월 초부터 시작된 추위로 주력 겨울 아이템인 썬에어 시리즈 등이 많이 팔렸다"고 말했다.

특히 9개 브랜드 중 독보적 매출 1위인 노스페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한다. 9개 브랜드 아웃도어 상품을 고른 고객 4명 중 1명은 노스페이스를 선택했다. 노스페이스는 2022년 매출이 전년비 41.1%로 급성장한 8419억원을 나타내며 제2 전성기를 맞았다. 2위인 디스커버리와 3000억원 이상 매출 차이를 벌였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MZ 세대를 비롯한 4050의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골고루 상품을 구매했다"고 전했다. 디스커버리는 매출이 전년 동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경기 침체가 예상돼 패션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레드페이스, 역동성 강조한 오버핏 아우터



▲레드페이스가 오버핏 스타일의 테크 다운 재킷을 출시했다.

아웃도어 브랜드 레드페이스가 운동·여행 등 활발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을 위해 자유로운 오버핏 스타일의 테크 다운 재킷을 선보였다.

미케니컬 엠보 튜브 테크 다운 재킷은 적당한 신축성으로 격한 움직임의 아웃도어 활동에도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인 기능성 아우터다. 다운 누출을 최소화하는 무봉제 심실링 기법의 이엑스 튜브로 방풍 기능과 통기성까지 갖추어 겨울 산행과 트레킹 등 장시간 활동에도 쾌적한 컨디션 유지를 돕는다. RDS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다운과 함께 목깃과 지퍼 상단 안쪽에는 부드러운 안감을 덧대어 아웃도어 가치와 보온성을 한층 강화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형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보수관리 제공!

**고객문의**

박 찬 Hp : 0812 9512 8990  
현지인 Hp : 0857 7752 7542  
Hp : 0812 9012 2019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0 No. 90,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pusat\_BGT@yahoo.com





**1펜디, NCT 재민과 자연을 담은 유쾌한 컬러 팔레트**  
글로벌 패션 하우스 펜디(FENDI)가 NCT 재민과 함께한 화보를 공개했다. NCT 재민은 FF 디테일의 블루 컬러 니트부터 땅과 바다, 하늘의 풍경을 담은 유쾌한 컬러 팔레트의 캐주얼한 티셔츠까지 펜디 봄/여름 23 남성 컬렉션의 다양한 룩을 소화했다.



**투미,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력 결합한 봄 컬렉션**  
퍼포먼스 럭셔리 브랜드 '투미(TUMI)'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인에 혁신적인 기술력이 결합한 2023년 봄 컬렉션을 출시한다. '알파 브라보 컬렉션(Alpha Bravo Collection)'의 새로운 아이템과 '보야저 컬렉션(Voyageur Collection)'의 베스트셀러 재출시, 미니멀한 감성의 '해리슨 컬렉션(Harrison Collection)', 그리고 '투미 맥라렌 60주년 기념 컬렉션 (TUMI | McLaren 60th Anniversary Collection)' 등으로 구성했다.

**주요 브랜드 2023  
광고 촬영 스토리 (3)**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스톤아일랜드, 40주년 맞아 컬렉션 비디오 공개**  
올해로 브랜드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이탈리아 럭셔리 스포츠웨어 브랜드 스톤아일랜드(STONE ISLAND)가 23 SS 컬렉션 비디오를 공개했다. 80년대를 선도했던 젊은이들의 서브컬처에서 영감을 받아 시클라멘, 마젠타, 옐로우, 오렌지 등과 같은 밝고 생동감 있는 컬러에 입체적인 실루엣을 더해 액티브하면서도 다이내믹하게 풀어냈다.



**MCM x 소니뮤직, 팝스타 '테이트 맥레이' 와 함께**  
MCM은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Sony Music Entertainment)의 FILTR 음악 플랫폼과 협업해 2023 봄-여름 캠페인을 선보인다. MCM은 음악, 예술, 여행, 기술과의 유대를 통해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지향하는 브랜드로 음악에 깊게 뿌리내린 브랜드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다. 디스코텍과 로큰롤이 압도했던 1976년에 시작된 MCM의 역사를 되돌아볼 예정이다.

 <p><b>NEXTIN</b> LED LIGHTING <b>ELECTRIC MATERIAL</b></p>	<p><b>Jakarta Office</b> Plaza Kenari Mas Lt.4 JI Kramat Raya No.101, RW. 01 Paseban, Senen, Jakarta Pusat Tel : +6221-3104414</p> <p><b>Cikarang Warehouse</b> JI Industri Utara 4 Blok SS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Cikarang Utara <b>Contac Person</b> <b>0815-1902-4272</b></p>	 <p><b>MRO GLODOK</b> SAFETY/PACKING/SPARE PARTS/ TOOLS/SAFETY/EQUIP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anufacturing Assy Cikarang</li> <li>Trading / Import Korea &amp; China</li> <li>Small Qty Can Be Accept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livery Onsite From Glodok</li> <li>Alternative / optional brand or technical conditions</li> </ul>
<p><b>LED Highbay 100W/150W</b></p>  <p>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IP 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p>		<p><b>PACKING ITEMS :</b> Silicagel, Wrapping, PE Bag, Opp Tape, Strapping Band</p> 
<p><b>LED TUBE T8 18W / 24W</b></p>  <p>Price 18W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p>		<p><b>STEEL ITEMS :</b> Alumunium profile, Belt, Reparation Parts</p> 
<p><b>LED STREETLIGHT - FLOODLIGHT - DOWNLIGHT - FLATLIGHT</b></p> 		<p><b>TOLLS &amp; CONCUMABLE ITEMS :</b> Hand Tools, WD 40</p> 
<p><b>ELECTRIC ITEMS</b></p>		<p><b>SAFETY/HSE ITEMS</b></p>
		
		<p><b>FACTORY EQUIPMENT AND SPARE PARTS</b></p> 



국내 스포츠 시장이 커지며 브랜드들의 점유율 전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패션계의 스포츠룩 트렌드와 엔데믹에 따른 외부활동 확대로 2023년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스포츠 시장 TOP3는 나이키, 뉴발란스, 아디다스다. 나이키의 핵심전략은 D2C 강화다. 나이키는 자사몰을 활성화하고 최고등급 초대형 매장인 '나이키 라이즈'를 확대하고 있다. 아디다스 역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합하며 나이키의 유통방식



▲2023년 스포츠 시장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사진-아디다스

보다 20개 늘린다는 계획이다. F&F가 전개하는 MLB는 올해 해외시장 공략에 집중한다. 현재 중국과 동남아 10개국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의 실적 상승이 가팔랐다. 2022년 3분기 누적 소비자 판매액이 약 7000억 원에 달한다. 2023년에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매장을 열 예정이다. 애슬레저 대표 브랜드 3사는 저마다 다른 전략을 선보인다. 체크믹스는 올해 해외시장공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중국

## 커지는 스포츠시장, 빅브랜드부터 애슬레저까지 각축전

을 따라가고 있다. 수백 개에 달하는 아디다스 매장을 24년까지 20개 정도로 줄이고 초대형 규모 매장들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서울 명동에 국내 매장 중 최대 규모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2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나이키 라이즈'와 단 5분 거리다. 2025년까지 이랜드월드에서 독점 전개하는 뉴발란스는 최근 2년간 40%의 성장세를 보이며 스포츠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김연아, 아이유가 우먼스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여성 마라톤 대회를 주최하는 등 여성·아동복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적은 3사 중 나이키가 압도적이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21년 6월~22년 5월)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1조 6749

### 빅브랜드는 초대형매장·D2C 주력 미들급은 신발과 아이덴티티 강화

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9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0% 늘었다. 패션 브랜드가 국내에서 기록한 역대 최고 연 매출이다. 뉴발란스와 아디다스는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17년 유한회사 전환 후 실적 공개를 하지 않지만,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매출은 연 7000~8000억원 수준에서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약 7000억을 판매한 뉴발란스와 2위 경쟁 구도를 이룬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보인 푸마는 2023년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스포츠 스폰서십 등 마케팅을 강화해 매출과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

이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인 힐라는 지난해 11월 글로벌 5개년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브랜드 재정비에 들어갔다. 지난해부터 LF가 전개하는 리복 역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미들급은 아이덴티티 강화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스케처스코리아(대표 윌리안)는 '컴포트 테크놀로지'를 컨셉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슬립인스'를 중점상품으로 빅모델과 다양한 체험 마케팅을 준비 중이며, 스포츠 스폰서십 활동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한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약 95%가 신발 아이템인 스케처스는 USA 브랜드, 골프화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

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년 대비 13% 신장한 매출 2360억원을 목표로 세웠다. 뉴컨셉 스토어 10개를 포함한 20개 지점을 새로 오픈해 총 238개 매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스펙스는 주력상품군인 워킹화 라인을 강화하고 라이프스타일 라인을 본격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시그니처 워킹화 '블레이드 BX'를 중심으로 기술 집약적 운동화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브랜드 헤리티지를 레트로, 빈티지 무드로 담아낸 라이프스타일 제품들로 MZ세대를 공략한다. 또한 4대 프로스포츠 후원 통해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13.3% 신장한 1700억원을 목표로 한다. 유통망 목표치는 350개로 전년

에서 해외법인을 설립했으며 현재 B2B 16개국, B2B·B2C로 총 55개국에 진출 중이다. 지난해 3분기 누적매출은 1409억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186억원을 기록한 안다르는 자사몰을 통한 D2C 전략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친환경 제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물라웨어는 오프라인 매장을 강화한다. 품질력에 집중해 연내 신규 원단을 상용화하고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프리미엄 잠웨어 물라(MULA)는 피지크 프로팀을 통해 브랜드 코어를 강화하고 여성용 잠자리를 런칭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SINCE 1969

##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 삼호 보일러

###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 노동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섬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Fax : 021.5984.666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株式会社 三湖ボイラー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ller.com

**PT. YUSUNG JAYA ABADI**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 2023 S/S 서울패션위크 '하나차 스튜디오' - 기하학 디자인 · 대비 요소

차하나 디자이너, 달과 별, 사각, 원형 등 조형 활용한 구축적 디자인

차하나 디자이너가 작년 10월 12일 DDP에서 23SS 컬렉션 31착장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도큐멘타1: 구성적 형태 (Design form : Circle, Square, Star)' 를 주제로 했다. 이번 컬렉션은 바우하우스 조형 교육을 담당한 '요하네스 이텐' 의 디자인 교육 이념과 구성 체계가 담긴 '디자인 앤 폼' 이라는 책의 내용인 조형 언어들로 완성했다. 사각, 원형, 원기둥, 나선형, 별형 등을 활용

해 기하학적으로 디자인했다. 트렌디한 로우 라이즈와 풍성한 볼륨으로 원형 실루엣을 드러내는 하의와 사각형 오브제를 든 상의의 형태적 특징이 구축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또, 달의 형태로 프린지의 평면화 버전을 표현한 착장은 필름사를 활용해 제작했다. 남성성을 표현하는 수트, 직선적 실루엣과 여성성을 담은 흘날리는 프린지, 곡선적 실루엣으로 대비적 요소를 의상에 담았다. 아

크릴 소재로 만든 별 조형물이 옷에 매달린 듯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이번 23SS 컬렉션에는 울과 실크 소재를 주로 사용했으며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블루를 메인 컬러로 썼다. 하나차 스튜디오는 학제적 연구를 패션에 접목해 패션디자인의 예술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오는 3월 상해패션위크 기간에 상해 쇼룸에서 옷을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 일반 인버터 타입 대비 **4%** 더 에너지 절약가능한 타입
2. FYH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유성열 : 0812 8037 0303 | 한상윤 : 0822 9999 1447 | Mariono : 0812 8763 965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